

‘나’라는 것이 없는 빛으로 화해야 이 세상 만민과 만물을 구원할 수 있어

6면에 이어

그런고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나무와 같은 마음이요, 이제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중성의 마음이고로 그런고로 음양의 마음이 있어? 없어? 음양의 마음이 없어, 아시겠어요?

음양의 마음이 없는 고로 그런고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나무와 같은 마음이고로 그런고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 되기만 되면 바로 죽으려야 죽을 수 없다는 건 지극히 과학적인 논리아? 비과학적인 논리아? 과학적인 논리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빛은 곡선 광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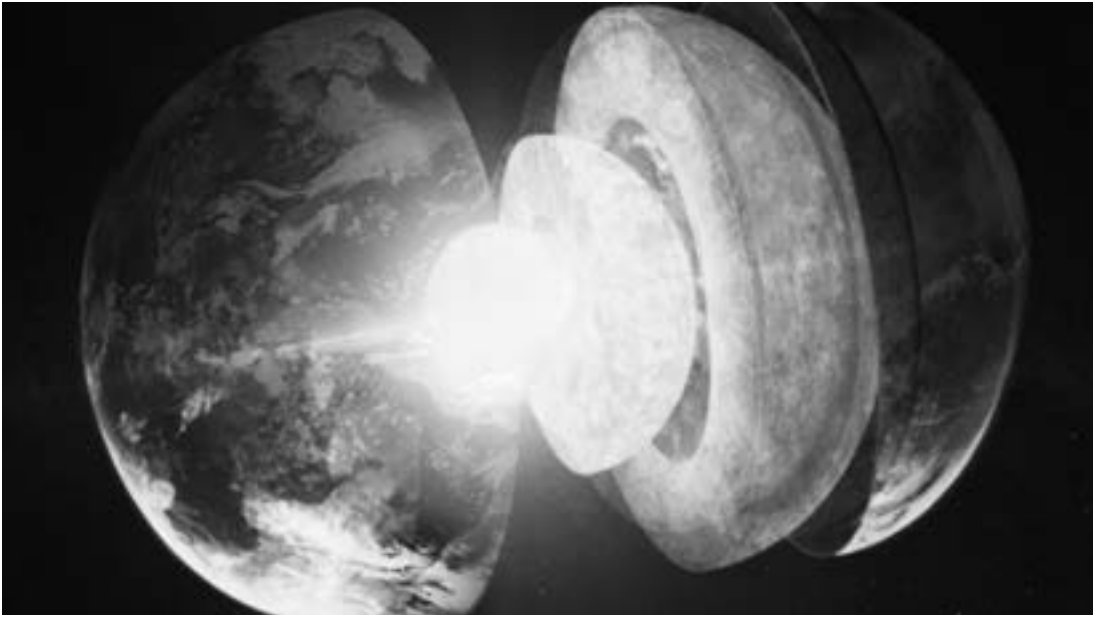
그런고로 이제그대로 오늘날 이제그대로 이 세상 빛은 바로 마이너스 플러스의 이제 빛이 되지만 하나님의 빛은 마이너스 플러스 빛이 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빛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그대로 이제 이 사람이 초창기에는 무슨 말씀을 했나면 직선 광선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지만 하나님의 빛은 바로 직선 광선이 아니요, 곡선 광선이요 구석구석이 다 비치는 그런 빛이고로 기둥이 있다고 그래서 기둥 저쪽은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안 비치는 그런 빛이 하나님의 빛이 아니고 기둥이 있어도 그 기둥을 뚫고 이제그대로 반대편에까지 비치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논했죠?

그런고로 이 세상에 빛이 있는데 곡선 광선이 있고 직선 광선이 있다. 하는 것을 초창기에 논했어? 안 논했어? 논했죠? 이제 그런고로 이제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왜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지 않느냐면 바로 이제 바로 인간의 두뇌로서는 바로 이제 그것을 이제 알기에는 벅찬 고로 그러한 지식을 담아 두기에는 바로 너무나무 벅찬 고로 그런고로 이루어진 다음에 저절로 알게 되는 고로 그런고로 하나님으로 거듭

나서 이루어진 다음에는 저절로 알 때까지 이 사람이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승리제단을 이제 우습게 보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건 멍텅구리야. 지금까지 이 사람이 세상에 흔해 빠진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어? 여기서? 새로운 말만하죠? 여기서 새로운 말만 해. 여기서 새로운 말만 하지 헌 말은 안 해. 남이 써 먹던 말 안 해 먹어. 이 사람 그런 거 안 해. 그런고로 새로운 세계 건설을 이 사람이 논하는 고로 그런고로 이 사람이 천국이 따로 있고 지옥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바로 천국이 지옥이요, 지옥 가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지옥이요, 이제그대로 영생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지옥이 천국이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논하는데 그럴 듯 하죠? 이게 그럴듯한 말이야? 정확한 말이야? 듣고 보니까 정확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은 이제그대로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의 세계야. 아시겠어요? 하나의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요 그런고로 천국이 지옥이요, 지옥이 천국이라고 해야 하나로 회복된다는 말이 이치가 맞아? 안 맞아? 이치가 맞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천국이 이루어지면 바로 지옥 가는 사람이 제 죄가 있는 사람은 이제 영원무궁토록 그 천국에서 그 천국은 빛의 세계요, 불덩어리 세계이고로 팔팔팔팔 뛰기를 100년만 한다고 그랬죠? 어? 영원무궁토록 해. 미안하지만. 아시겠어요? 지옥 가는 사람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지옥 가는 사람에게는 영원무궁토록 팔팔 뛰는 거야. 그 지옥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뭐 의심하고 싶으면 의심하



지구의 내부 핵이 지난 20년 동안 모양이 변했을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https://blog.naver.com/eterna01/223756127399

든지 뭐, 이제그대로 주둥이를 가지고 개소리를 하든지 뭐 소 소리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지옥 가고 싶으면. 아시겠어요?

자존심이 있으면 지옥에 가

이 구세주가 나오면 반드시 하늘나라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반드시 이루어져. 반드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고로 그런고로 이제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을 했지만 점점점점 바닷물이 많아진다고 이제그대로 신론,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있죠? 바닷물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일본 육지가 점점 바닷물이 많아져가지고 이제그대로 점점 알아진다는 말이 있어? 없어?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지구덩어리가 점점 더워지는 거야? 점점 차가워지는 거야? 점점 더워지는 거죠? 이 지구덩어리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불덩어리가 있다고 그랬죠? 지구덩어리 속에 불덩어리가 있어. 그 불덩어리가 이제 점점점점 뜨거워지면 바로 이제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 안 녹아? 얼음이 녹으

면 물이 많아져? 작아져? 물이 많아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고로 옛날에는 겨울이 추운 겨울이 길어? 짧아? 요즘에는 추운 겨울이 길어? 짧아? 그걸 봐도 모르는 멍텅구리는 그건 지옥 가야 마땅해? 천당 가야 마땅해? 지옥 가야 마땅해. 아시겠어요? 그런고로 추운 겨울이 점점점점 짧아지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점 이 지구덩어리가 이제 더워지는 고로 기후가 더워지고 있어? 차가워지고 있어? 더워지고 있죠? 이제그대로 지금부터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그대로 오늘이 3월 30일인데 3월 달, 4월 달까지 추워? 안 추워? 이제그대로 조금씩 이제그대로 따뜻해지기는 해도 이렇게 영상 20도까지 올라오는 전례가 있었어? 없었어. 3월 달에 영상 20도 이상 올라온 적이 없었어. 그러나 금년에는 영상 20도 이상 올라가는 기후가 많아? 안 많아? 많죠? 이걸 보고도 못 깨닫는 건 그건 멍텅구리야? 멍텅구리 아냐? 멍텅구리죠?

그런고로 이제그대로 점점점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그대로 차츰차츰 변화가 돼 가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한심하죠? 한심해? 안 한심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그대로 빨리빨리 나를 버리기 위하여 자존심을 버리기 위하여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마귀를 빨리 제거하고 우리가 전부 완전히 내가 나라는 것이 없는 빛으로 화해야 돼? 화하지 않아야 돼? 빛으로 화해야죠? 빛으로 화해야 그래야 이제그대로 이 세상 만민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 만물도 다 구원해? 구원 안 해?

나무와 풀들이 이긴자를 향해 절을 하다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되고 나니까 밀실 안에서 나무들이 이 사람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나무들이 절을 해. 나무가. 이쪽 나무는 이쪽에서 절을 하고 저쪽 나무는 저쪽에서 절을 하고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구부리는 거야? 절을 하는 거야? 이쪽 나무는 이쪽에서 절을 하고 저쪽 나무는 저쪽에서 이 사람 보고 절을 해요. 아시겠어요? 만물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나왔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바로 이제 이 세상 식물들은 알아? 몰라? 풀도 절을 하고 나무도 절을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때 말씀했죠? 그제 여러분들 사실일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걸까? 사실이야. 아시겠어요?

그런고로 나무가 절을 하고 풀이 절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그대로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이 나무가 왜 이래?” 그러니까 나무들이 떨어요. 떠는 게 뭐야? 떠는 게 웃는 거죠? 나무가 떨어. 그 왜 그래? 이 나무가. 나무들이 절을 하니까 “이 나무들이 왜 그래?” 그러니까 나무들이 덜덜덜 춤을 추는 것만냥 떨어. 그게 뭐냐면 웃는 거야? 웃지 않는 거야? 나무들이 웃는 거야. 그게. 뭐냐면 구세주님이 그것도 모르시냐고 하면서 웃는 거야 그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 알았다.” 하니까 그때야 나무들이 절을 하고 피지를 얹어요. 절을 하고 피지를 얹어. 다 절을 하고 이 사람이 지나가니까 께. 그런 걸 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자신 있을까? 자신 없을까? 그래서 자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아시겠어요? 그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자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사람을 닮아야 돼? 안 닮아야 돼? 이 사람을 닮아야죠? 이 사람을 닮아가지고 빨리빨리 자존심 버리는 노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 자존심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에 불구덩이 들어가. 아시겠어요? 으스스대고 까불어 봐야 소용없어. 아시겠어요? 그게 무슨 소용 있어? 그까진 게. 내가 뭘 했다. 뭘 했다. 무슨 소용이 있어? 지옥가. 나라는 자존심 있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자존심을 빨리 버려야 돼? 빨리 안 버려야 돼? 여러분들 뭘 많이 안다. 성경을 많이 안다. 고서를 많이 안다. 이제그대로 내가 이 세상 학문을 많이 안다.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아는 게. 그게 필요 있어요?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존심 버리는 노력, 열심히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2025년 5월 12일 본부제단 예배 말씀으로 인터넷 <https://www.victor.or.kr/sub401/250512-920331/> 에서 재시청할 수 있습니다.

격암유록 新 해설
수정판 제 74회

정도령의 천지 공사가 끝나면 불사영생의 신선세계가 되느니라

鷄鳴聲(二) 계명성

責(귀)여름다 우리阿只(아지)
十八抱子達窮達窮(십팔포자달궁달궁)
六十一才白髮(육십일재백발)이나
知覺事理(지각사리) 青春(청춘)일세
容天劬(용천김을 갖었으면
均一平和主仰(균일평화주양주양)
三共和合何時(삼공화합하사)던고
通合通合天下通合(통합통합천하통합)
可憐時事慘酷(가련사시참혹)하다
作掌作掌作掌作窮(작장작장작장작궁)
人王四維(인왕사위)원말이나
光明世界明朗(광명세계명랑)하다
孝當竭力忠則盡命(효당갈력충칙진명)
表彰門立直界直界(표창문립직계직계)
擲榼大會(척사대회)하고보니
無才能分明무재능분명)아하야
五卯一乞(오묘일길)相東(상동)불출)
갈나니活活道飛(활활도비)

목운(十八=木=영모)이 아기를 안고 (영적인 어머니가 아기가 되는 금운 정도령을 키우는 모습을 그림) '귀엽다. 우리 아기' 하면서 '어서 크고 자라라.(진리, 영적으로)' 61세면 백발노인이냐? 하나님이 이루어고자 하시는 천지 공사와 영생의 진리를 알고 깨달으면 청춘이니라.

정도령이 용천검(容天劬=진리의 말씀)을 들고나오면 누구나 다 하나같이 평

화를 얻으리니 주님(정도령)을 고도로 사모하고 초초로 바라보라.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라. 천지인이 함께 화합하여 하나가 되는 때(삼인동행 삼인일체)가 언제 인가? 통합하소. 통합하소. 천하가 다 통합하소. 그렇지 않으면 가련하게도 그날 그때 참혹한 세상일을 당하리라. 혈맥관통(血脈貫通)하고자 손뼉을 힘차게 치며 정도령의 영생의 진리를 찬양하라. 인왕사유(人王四維)가 무슨 말이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인 정도령이 영생의 진리를 천하에 펼치니 온 세상은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세상이 되리라. 부모에게 효도를 함에는 마땅히 있는 힘을 다해야 하고 국가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하면 표창문(表彰門)을 세우는 것과 같이 십승지(十勝地) 선경을 향해 곧게 바르게 나아가리라.

정도령이 세상사에 별다른 재능이 없음을 분명하나 웃놀이를 하고 보니 모다 씻에 걸(乞) 한 번으로 낙동이 단 동으로 나버리게 되느니라. 옷팔 낙동을 단 동으로 만들어 단번에 나는 것이다. 모(母) 다 씻은 을묘 정묘 기묘 신묘 계묘를 말하고 걸은 세 발을 가며 양(未)을 의미한다. 이로써 28수(節)를 그려놓은 옷판이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단군의 후손으로 오신 미륵불(구세주)이 출현하여 살아 천당 영생

의 대도를 펴시니 죽어 천당 간다는 '비진리'의 세상이 끝나고 살아서 우주를 훨훨 날아다니는 세상이 되느니라. 천지공사가 끝나면 이 세상이 불사영생의 신선이 사는 선경이 된다는 것이다.

堯舜亦有不肖子息(요순역유불초자식)
末聖豈無放蕩兒只(말성기무방탕아지)
世人莫謫浮荒流說(세인막도부황류설)
改過修道不入地獄(개과수도불입지옥)
欲明其理先知根(욕명기리사전근)
末世二樹或一人(말세이수혹일인)

성인이라는 요순(堯舜)에게도 불초자식(不肖子息)이 있었건만 말세 성군(목운)에게 어찌 방탕한 아이가 없겠는기? 세상 사람들이여! 뜬소문과 유언비어를 보고 듣지 말라.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성경신(誠敬信)을 다해 도를 닦으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치를 분명히 알고자 하면 먼저 근본(불초자식이 있었던 말세성군 5도72궁 정도령)을 알아야 하리라. 간(幹)나무원체(元體)격인 목운(木運)과 지체(肢體=아들)격인 금운(金運)을 말하느니라. 또한 사람이 있느니라(여인 한 분). 목운과 여인 한 분, 금운이 삼일일체(삼운 속에 삼일일체가 완성된다)가 되며 삼인동

행(三人同行)이다. 여인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밖으로 드러나는 천지 공사는 목운과 금운의 두 분이 행하는 것이다.

歌辭總論(一) 가사총론

東方甲乙三八木(동방갑을삼팔목)
靑帝將軍(청제장군) 靑龍之神(청룡자신)
南方丙丁二七火(남방병정이칠화)
赤帝將軍(적제장군) 朱雀之神(주작자신)
西方庚辛四九金(서방경신사구금)
白帝將軍(백제장군) 白虎之神(백호자신)
北方壬癸一六水(북방임계일육수)
黑帝將軍(흑제장군) 玄武之神(현무자신)
中央戊己五十土(중앙무기오십토)
黃帝將軍(황제장군) 句陳騰蛇(구진등사)
鼠牛子丑(사우자축) 兔虎寅卯(토호인묘)
龍蛇辰巳(용사진사) 馬羊午未(마양오미)
猴雞申酉(후계신유) 狗猪戌亥(구저술해)
天干地支變數中(천간지지변수중)의
年月日時四象(연월일사사상)으로
推算之中破字法(추산지중파자법)을
三秘論(삼비론)의 理氣化(이기화)로
如合符籙(여합부설)되오리라

방위로서 동방은 천간으로는 갑을(甲乙)이요 역수(易水)로는 삼팔(三八)이요 오행으로는 목(木)이요 신장(神將)으로는

청제장군(靑帝將軍)이요. 방위신(方位神)으로는 청룡(靑龍)이다. 남방은 천간으로는 병정(丙丁), 역수로는 이칠(二七)이요 오행으로 화(火)요 신장으로는 적제장군(赤帝將軍)이요 방위신으로는 주작(朱雀)이다. 서방은 천간으로는 경신(庚辛)이요 역수로는 사구(四九), 오행으로는 금(金)이요 신장으로는 백제장군(白帝將軍)이요 방위신으로는 백호(白虎)이다. 북방은 천간으로는 임계(壬癸)요 역수로는 일육(一六)이요 오행으로는 수(水)요 신장으로는 흑제장군(黑帝將軍)이요 방위신으로는 현무(玄武)이다. 중앙은 천간으로는 무기(戊己)요 역수로는 오십(五十)이며 오행으로는 토(土)이다. 신장으로는 황제장군(黃帝將軍)이며 방위신은 구진등사(句陳騰蛇)이다.

지지(地支)를 설명하면 서우(鼠牛=쥐소)는 자축(子丑), 호토(虎兔=범토끼)는 인묘(寅卯), 용사(龍蛇=용백)은 진사(辰巳), 마양(馬羊=말양)은 오미(午未), 후계(猴雞=원숭이닭)는 신유(申酉), 구저(狗猪=개돼지)는 술해(戌亥)이다. 천간(天干)과 지지(地支)가 서로 엮여지며 그 운수와 역수가 변화하는 가운데 연월일시(年月日時) 사상(四象)을 그려놓았고 파자법(破字法)을 이용하였으니 미루어 짐작하여 살펴보라. 송가전(松家田)의 세운수의 비밀과 목숨을 보전하는 법을 이기(理氣)의 조화로 논한 삼비론(三秘論)을 깨친다면 그 시기가 한 치도 어긋나지 않고 딱 들어맞음을 알 수 있으리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010-3912-5853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승리신문은 독자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